

불자 세상보기



무현 스님  
보경사

현대사회에서 TV 방송이 가지는 힘은 크고 대단하다. 방송이 올바르게 제작되고 방영됐을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잘못 전달될 때는 개인은 물론 해당 단체에 마음의 상처와 큰 피해를 준다.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세계의 찬사를 받고 안타깝게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7분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헤쳐 온 것은 통감한다. 하지만 KBS 해설자가 그 감회를 해했다. 해설자는 중계방송을 하면서 "길고 긴 수행을 했다. 수행을 마쳤다"라는 말을 했고, 아나운서도 이 같은 말을 받아서 따라했다.

몇 년동안 수많은 땀을 흘리고 갈고 닦았으니 수행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종교는 종교마다 특성이 있고 그에 맞는 언어가 있다. 수행은 스님들이 평생을 갈고 닦는 행위이다. 그 말은 위외에 맞게 쓰여질 때 아름답다. 굳이 불교용

어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아름다운 경기를 하는 선수'라거나 '경기 나 연기'라는 발언을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KBS 1TV에서 매주 방영되는 '열린음악회'에서도 종교적으로 불편한 장면들이 속출하기도 한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년이라고 방송을 하면서 진행자가 추기경이 남긴 말들을 어록이라고 말한다. 실제 '어록'이라는 말은 유명인들의 말 모음에도 사용된다.

대부분 좋은 뜻으로 한 말이겠으나 어록은 중국과 한국의 옛 조사 스님들의 말씀집을 말한다. 유구한 한국불교의 역사가 우리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주는 단초면서도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잘은 몰라도 정작 천주교에서는 어록이란 말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 영역인 방송도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이야기하면서 제작자나 진행자는 다른 종교도 알아보고 생각하고 하는 방송이 됐으면 한다.

이 같은 사례들은 이전에도 있어왔다. 일전에 KBS 1TV '진품명품'에 도산

안창 호선생이 만든 지승발우가 나온 적이 있다. 한 전문위원이 "스님들 공양그릇"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술까지 담아 먹었다"라는 말을 했다.

발우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의 공양그릇이지 술 먹는 그릇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교용품을 감정해온 전문위원이 기본 상식도 없고 자격이 없는 멘트를 한 것이다. 이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KBS 담당 PD에게 항의해 "재발방지하겠다"는

불교 무시 '무관심' 안타까워  
술 불교인 몰이해 지적해야

내용의 사과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은 이미 방영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불교 문화에 방송에 의해 훼손됐다고 본다.

요즘에는 KBS 2TV에서 드라마 '갑격시대'를 하고 있다. 일본의 망언과 우경화에 맞서 일제 당시 우리 민족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좋다. 하지만 사찰 법당 안에서 주인공이 부모 위패를 모시고 울컥해 이내 여자 주인공과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한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효(孝)사상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또한 불쾌하기까지 했다. 부모의 위패가 있는 자리에서 남녀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하물며 장소가 부처님이 있는 법당이다. 성스러운 공간에서 남녀상열지사라니... 개탄할 뿐이다.

불교에 대한 몰이해가 방송이 되는 데도 정작 불교인들은 관심이 없다. 세상일이 바빠서인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인가?

불자들의 무관심은 불교를 좀 먹는 행위이다. 무관심하다보니 불교의 권익이 침해당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시정하러 하지 않는다. 한 예로 불교유치원, 어린이집 하나가 없어 불자 어린이들이 교회 유치원을 다니는 지역이 서울 곳곳에 존재하는 데도 신경쓰는 스님과 불자는 없다. 이웃 종교인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외국에 포교를 가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종교가 불이익과 대중적 몰이해를 당하고 있다면 마땅히 지적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스님을 비롯해 모든 불교인이 돌아보고 각성해야 할 일이다.

社說

늦게 발동한 불교 지적재산권 보호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이다. 각종 문화 콘텐츠들이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문화 예술분야의 작품처럼 사람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 역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 영화계의 '굿 다투로더' 캠페인이라 하겠다.

불교에도 전국 사찰과 성보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 원형 콘텐츠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적 재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모르다 보니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2차 창작물에 대한 활용이다. 사찰

에서 아이디어와 소재, 비용을 제공해도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창작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혹여 외주를 통해 2차 창작물을 만들 경우 작품에 대한 권리가 사찰에 있음을 계약 조건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조계종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상황별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알리는 사업을 연중 진행하는 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다. 불교지식재산이 활용되면서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업들은 불교를 바로 알리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교의 지적재산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찰과 종단에 중요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불교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흐름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소외여성 위한 불교의 역할 강화 절실

지난해 경상북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주여성 7천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이혼했고 90여명이 남편과 사별했다. 이들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 지난 3월 5일 진오 스님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인 달팽이모자원을 개원한 이유다. 달팽이모자원은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모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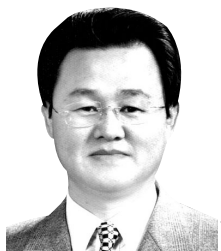
터 등 여성 소외계층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시설들도 한 몫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지원시설인 '달빛둥지'를 비롯해 여성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변 보호 및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빛'이 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24시간 긴급 상담과 보호를 실시한다. 어울림 역시 아동·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천태종 서울 명랑사가 국내 처음으로 2009년 개원한 다문화모자자정 보호시설인 명랑빌리지도 있다.

세 불교복지 모델을 대안가족이나 소외계층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복지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소외계층을 위해 불교계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불교복지 모델을 대안가족이나 소외계층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복지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소외계층을 위해 불교계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쿠시나가르 성지 기행



이근동  
대구대영예교수

속세의 번뇌를 훌훌 털어버리고자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갖는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를 망설이다가, 교수불자 연합회의 일원이 돼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 나섰다.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인도기행에 동참하였다.

여러 방문지 중 하나인 석가모니의 열반 및 다비장소인 바이살리와 쿠시나가를 방문했다. 쿠시나가는 석가모니의 다비식을 치른 람바르 스투파와 석가모니가 입멸한 자리에 세워진 순백의 사원 열반사를 참배할 수 있었다. 석가모니의 사리는 처음 7개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현재는 전 세계 84,000여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절이 다섯 곳이 있는데, 법흥사·봉정암·상원사·정암사·통도사가 그곳이다. 이들을 특별히 5대 적멸보궁이라고 하고, 이 사찰의 대웅전에는 불상

을 모시지 않는다. 부처님 다비 후 얼마나 많은 사리와 유골을 수습했는지는 모르겠고, 더욱이 그 사리가 우리나라에까지 유입된 경로를 잘 알지 못한다. 하나 불교교리에 따르면 인간이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는데, 이생의 잔유물인 사리를 수습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법열의 경지에 들기 전까지 하나의 인간이었다. 불교란 자아성찰과 구도의 종교요, 그것도 이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다가갈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되었다. 입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염불만 하고 석가모니에게 기원만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입멸의 순간에 제자들 불려놓고 나는 신이 아니라 하나의 각자일 뿐이다. 그러나 절대로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불상을 만들고 사리를 수습하여 탑을 만드는 우를 범했다. 아무래도 하나의 종교를 창시하였으니 그 정도의 신성화 작업이 필요했으리라. 그러나 이후 불가에서 법열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한 선사들까지 너도나도 사리를 수습하여 부도탑

을 만드는 나쁜 전통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불교교리에 따르면 내세가 있다고 하되, 인생에 무슨 미련이 남아 살아왔던 흔적을 그렇게 남기려고 아등바등 대는가? 이런 점에서 평상복에 평소 휴식하던 대나무 평상 위에 놓혀 다비하되 사리도 수습하지 말고 절대로 신자들로부터 보시금을 걷어 부도탑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시고 훌훌히 피안의 세계로 떠나신 법정 스님이 바로 이 땅에

명예와 재산은 잠시 빌린 것  
주변에 회향하는 마음 갖길

죽어서 다시 탄생하신 한국의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행복이란 사회적 지위와 재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얻어진 명예와 재산은 은퇴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살이를 위해 잠시 빌린 것임을 알고,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운이 좋게도 나에게 그런 처지에 있게 한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향(回向)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설법하는 것 같았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운수남자가 되어 먼 길을 떠나보라는 원주 스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뇌리에 맴돌았는데, 그것을 이번 기행에 12일 동안 실천한 기본이다.

인도 여행 동안 홀로 정진하는 시간이 많이 가지게 되었다. 지병(持病)에 시달리면서 간간히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웰에이징에 대한 생각을 더러 하게 된다.

이번 인도기행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나이의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여안고 가야 할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란 화두를 조금이나마 깨우쳐 생과 사는 하나이고, 최후의 순간은 제 무게를 이기 못하고 땅으로 툭 떨어지는 밤들과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하였다. 비단 법열(法悅)의 순간에 도달하지는 못할 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름처럼 바람처럼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인터넷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인터넷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인터넷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